

# 국민-바른정당 통합론 '태풍의 눈' 부상

### 내년 지방선거 생존 위한 승부수...安-劉 조만간 회동 호남 중진·한국당 통합과 반발...호남·영남 민심도 변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연대 및 통합론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도부 모두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새 판 짜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당의 내부 반발 등 변수가 많아 현실화까지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의 혁신과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호남 민심이 과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동의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통합 및 연대 논의 부상=국정감사 기간에 불거진 중도 통합론이 수면위로 부상함에 따라 내부에서 사실상 공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일단 당내 의견을 수렴하면서 중도 연대·통합론을 의결 것으로 전망된다. 안 대표가 호남 중진의원들의 수요일 조찬회동에 참석, 통합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대표는 조만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회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국회 국정감사 종료 이후인 다음 달 초에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진로와 노선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당내 통합론자들과 자강론자들의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른정당도 통합론 피우기에 나섰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당의 통합 의제를 최고위원회에 상정하고 공식적인 당내 논의를 시작했다.

정체성이 다르고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대표 진영의 통합·연대론은 호남 탈출이 근저에 깔려 있고 결국 자멸로 가는 길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호남 현역 의원들은 물론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안철수 대표 진영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서 죽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여기에 양당의 통합은 영호남의 지역 구도를 극복하고 강력한 중도 제3당 구축으로 당내 제 구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축으로 양 당이 통합에 나선다면 정치적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호남 초선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도 내부가 복잡하다. 당장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과는 국감 이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단 탈당이 현실화된다면 바른정당은 11월 전당대회 이전에 반 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소속 단체장들의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민심의 동의 여부다. 호남 민심은 시대적 개혁 동력 확보에, 영남 민심은 보수 통합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다른 지지 기반의 민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의 명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임동욱기자 tuim@



영산강환경청 국감 19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국 8개 지방환경청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신경쓰이는 與... '중도정당 통합론'에 촉각

### 통합시 개혁입법 전략 수정 불가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정당 통합론'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통합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과정이 만만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과 개혁입법연대를 구축으로 개혁 과제를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정치국회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정당의 통합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국민의당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만큼, 우선은 국정감사에 매진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권의 협조가 불가피한 정치국회 현실에서 통합 논의에 괜히 끼어들어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지율이 5% 안팎으로 지지부

진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뛰어든 이유가 없다는 계산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일각에서는 불구경만 할 처지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소야대의 정치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통합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

기되고 있다.

정책 및 개혁입법연대 제안,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협의 등 국민의당을 향한 '햇볕정책'을 강화한다면 중도정당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의외의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정치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는 점에 비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중도정당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분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 송기석 "꽃게 잘못 표기한 미술랭에 관광공 20억 투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9일 "한국관광공사 프랑스 미술랭(社)와 만든 '미술랭 가이드 서울판'에 꽃게(blue crab)가 flower crab로 표현돼 있는 등 황당한 오류가 34개나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욱 황당한 건 이처럼 아무렇게나 영타리로 만들어진 미술랭 가이드에 한국관광공사가 20억원을 투입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은 "미술랭 가이드 발간 계약서를 열람한 결과, 관광공사가 미쉐린 측에 '미술랭 가이드 서울판' 발간 지원금으로 2015년 5월 계약 전 선입금 10만 유로(한화 1억3300만원)를 지급하고,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30만 유로(한화 4억원),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20만 유로(한화 2억 6600만원)를 지급해야 하는 등 총 20억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한 국관광공사가 그간 맺은 국내·외 출판물 광고비 명목으로 건당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을 지급한 전례에 비해 봤을 때 미술랭 가이드 서울판 제작에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지출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는 미술랭 가이드의 공신력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는 해명이나, 실은 아무렇게나 대충 만들어졌다"며 "한국관광공사는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최경환 "수돗물 직접 마시는 국민 100명 중 5명 뿐"



최경환 의원은 19일 "우리 국민 100명 중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수는 5명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은 이날 수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2013년 수돗물 만족도 조사(수돗물 홍보협의회) 결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4% 수준으로 미국(56%)과 일본(52%)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이유는 시설 노후(물탱크·수도관)에 대한 불신 30.8%, 상수원 오염우려 28.1%, 이물질·냄새 24.0% 순으로 나타났

다"며 "수돗물이 정수장을 빠져나가 상수도를 거쳐 수도꼭지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5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5만8545km로 전체 수도관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관 교체 등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녹물 발생 등 수돗물 이상 현상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한국당, 오늘 박근혜 탈당 권유

### 朴, 10일 이내 탈당신고서 미 제출시 자동 제명

자유한국당이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국당은 윤리위 개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홍준표 대표는 위원장 부담을 덜기 위해 직접 윤리위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정계 수위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 곧바로 제명을 결정하기보다는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방식이 유력

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윤리위 소집에 앞서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자진 탈당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홍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예우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뜻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이번 주 안으로 출당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탈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최고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 제명은 최종의 결될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학지로 36